

STANDARDS BUILDER 노문옥 FTI시험연구원 원장

정리_ 윤정호 기자 + 사진_ 김성문 기자



환경·바이오·산업부품소재의 글로벌 종합시험기관으로 도약

노문옥 FTI시험연구원 원장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제품의 수출검사를 목적으로, 1964년 발족한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검사부를 모태로 한다. 초창기엔 수출용 섬유의 외관검사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섬유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 위주로 변화하였고, 섬유산업 고도화와 구조조정 등에 발맞추기 위해 2005년에 FITI시험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섬유패션제품을 포함해 토목섬유, 자동차용 섬유 등 산업용 섬유제품, 산업소재, 화학 및 유해물질 분석, 환경자원, 바이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분석, 인증, 컨설팅, 교육 등 종합적 품질관리와 시험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COSD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국제 무역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트렌드를 KS표준에 적극 반영시켜 우리나라 섬유, 패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제품을 ISO표준으로 최종 채택시키는 등 국제표준화활동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노문옥 FITI시험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성과와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COSD(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기관으로서 FITI시험 연구원이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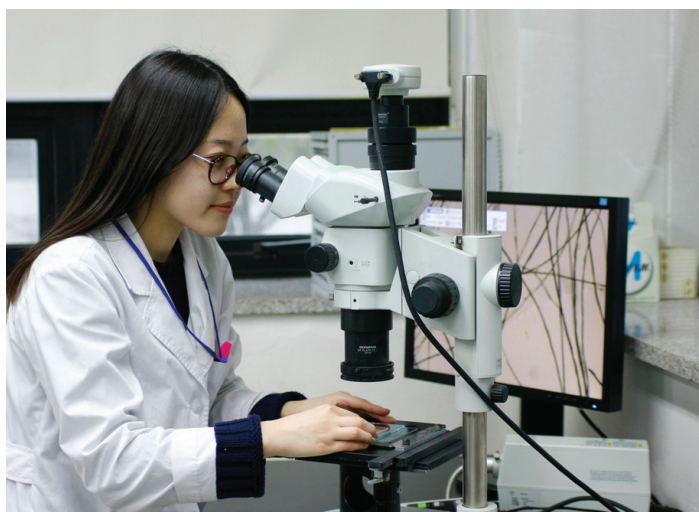
FITI시험연구원은 2009년 COSD제도 시행 첫 해에 산업용섬유(ISO/TC221) 분야를 지정받은 후 바닥재(ISO/TC219)와 보호복 및 보호장구류(ISO/TC94) 분야 등 섬유 관련 3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총 29종의 신규 KS를 제정하고, 49종의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COSD 제도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국가표준과 상호연관이 밀접한 민간의 단체표준, ISO표준 그리고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대시키는 각종 표준 개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COSD기관으로서 FITI시험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표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섬유, 패션 및 기능성 섬유소재 시장의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표준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COSD기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지정 분야의 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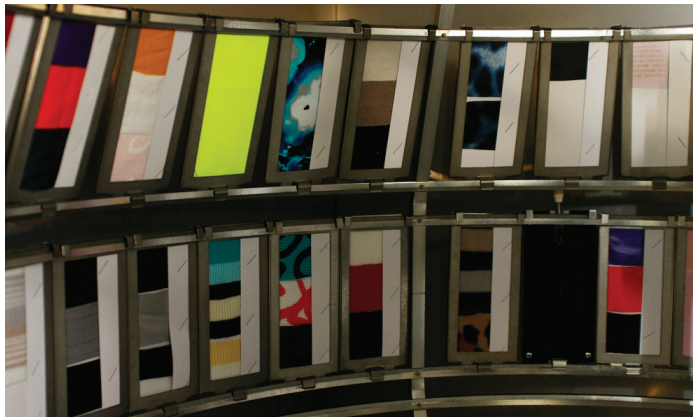
우선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통일화가 시

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안전, 건강과 환경을 위한 각종 규정과 법령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표준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 간의 상호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COSD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논의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대응역량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개발되는 표준은 산업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ISO 26000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까지 그 범위가 확



▲ 섬유감별 장면



▲ 가공실-일광견뢰도 시험장비

대되어 특정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COSD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는 물론, 내부역량 확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표준원의 경우, 표준화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조직을 구성하였음에도 FTA 체결과 같은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Green산업화 등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국가표준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역량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표준화활동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산업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FTI시험연구원의 경우 ISO와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소개해주십시오.

FTI시험연구원은 1998년 ISO/TC 38 Textile 분야에 대한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제표준화활동에 참여한 이후, ISO 국제표준화회의 및 미국의 사실상 국제표준화단체인 ASTM, AATCC에 지난 10년간 총 50여 회에 걸쳐 연 인원 70여 명의 원내 전문가를 매년 참석

시켜왔습니다.

2003년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기술표준원을 도와 아시아 최초로 ISO/TC 38 Textile 제주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4년에는 ISO/TC 221 Geosynthetics(토목섬유) 서울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꾸준한 활동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ISO/TC 219 바닥재(Floor coverings)와 ISO/TC 38/SC 23 섬유 및 원사(Fibers and Yarns)의 secretary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FTI시험연구원이 자체 개발하여 ISO표준으로 제안한 ‘스포츠 레저용 섬유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흡한속건 섬유소재의 건조속도 측정방법’은 새로운 WG를 설치, 컨비너를 맡아 국제전문가들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공식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FTI시험연구원이 개발하여 국내 업계에 보급시킨 토목용 섬유제품인 PDB(Plastic drain board)에 대한 품질시험방법을 KS 표준으로 제안 채택토록 하고, 동시에 ASTM에 제안하여 신규 시험방법 ‘ASTM D6918 Method B’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FTI시험연구원은 기업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단체표준을 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발된 표준을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활동이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2008년 ‘표준의 날’ 유공기관 표창에서 ‘단체표준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섬유, 환경자원, 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FTI시험연구원은 기존 섬유 중심의 시험서비스에서 환경과 바이오, 그리고 산업부품소재 분야의 업무 확대를 통하여 종합시험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오창 과학단지에 산업, 환경, 바이오 관련 시험연구센터를 건립하였고 이 분야를 미래 핵심사업의 전략으로 간주하여 전문인력과 정밀기기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발효에 따른 해외시험기관과의 시험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등 글로벌 종합시험기관으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SF마크에 대해 소개해주시오.

SF마크는 FITI시험연구원이 KAS(한국제품인정제도) 체계 하에서 품질이 우수한 위생가공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SF마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섬유 및 의류제품, 주방용품, 산업자재, 토목·건축용품, 가구 및 실내장식용품, 생활일용품, 가전제품 등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가공 처리된 제품이지만 인지도와 신뢰성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기업이 FITI시험연구원에 SF마크를 신청하면 공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SF마크를 부여하며 매년마다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SF마크가 부여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불량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환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FITI시험연구원 같은 공인시험기관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향상과 매출 증대를 기할 수 있



▲ FITI시험연구원의 야경

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품질경영과 사내 품질관리의 식이 제고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SF마크 제품은 군·관 납품시 품질관리능력 항목에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SF마크 대상제품의 확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SF마크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표적인 인증마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장님의 경영철학과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금까지 모든 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섬유제품의 시험기관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험인증시장에서도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시장 위주 섬유시험기관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시험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FITI시험연구원 모든 임직원들은 확고한 주인의식과 목표를 갖고 합심단결하여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표준**



▲ 일광건뢰도 시험장면